



여주 여강선원에서 활동 중인 한 시민이 공사가 진행 중인 강으로 들어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여주 여강선원장 수경 스님이 4대강 공사 현장 주변에서 오체투지로 생명 평화를 기도하고 있다.



공주 금강선원을 찾은 공주대 학생이 4대강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소원지를 묶고 있다.

강이 사라진다... 인간과 자연 공존케 하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눈에 불을 켜고 3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다가 올 장마철 전까지 4대강에 16개의 보 건설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60%의 공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보 건설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포크레인 이 활귀고 간 자리에는 못 생명이 죽어가고 강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연의 질서에 종교·환경·사회단체의 반대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도 4대강변에서는 삼질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정부가 말하는 '4대강 사업'은 오염된 하천을 정비하고 홍수재해 예방 차원에서 22조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정작 피해를 입는 곳은 지류인데, 본류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홍수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4대강 사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댐 건설, 하도 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조 등은 모두 강 중하류와 도시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가뭄이 발생한 지역과는 무관하다.

또 16개 보는 지점에 따라 높이가 4-13m로 수문이 달려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는 높이가 10m 이상으로 댐에 가깝다. 대한하천화회는 보 설치에 따른 6가지 자연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4대강은 사라지고 16개의 넓은 저수지가 만들어진다 △수위가 상승돼 주변 지하수위가 높아진다 △흐르는 강물을 막아 수질이 나빠진다 △유속이 느려져서 퇴적물이 쌓인다 △수심이 깊어져 부영양화(정체된 수역에 영양분이 많아져 조류가 많아져 물이 흐려지고 용존산소를 감소시키는 현상)가 발생한다 △수표면적이 늘어나 안개가 빈번해지면 일조량이 감소해 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하천화회는 4대강 사업의 정부안이 "건강한 사람에게 병부터 먼저 주고(보 설치)나중에 약을 줘서(수질 원상 복구) 그 후에 보(수질개선사업)를 먹이면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주장과 비슷하다"며 "보를 막는 일보다 수질개선사업이 우선 시행 돼야 할 것" 말한다. 사회, 환경적 문제와 함께 정부와 시민간의 소통 부재와 일방적 과행도 문제다.

4대강 사업은 66.8%(2010년 3월 경향신문과 KSOI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지금이라도 중단(36.3%)' 과 '규모 축소 추진(30.5%)' 이라고 답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정부는 '국민이 잘 몰라서' '정부가 홍보를 잘못해서' 라는 식으로 홍보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정부는 2009년 9월부터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으로 현재 4대강 각 강에서는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4대강 사업은 대형토목공사로 설계만 2-3년, 환경영향평가는 최소 1년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과 시공을 이명박 정부 임기 전까지 끝낼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 더 큰 논란이 우려된다.

4대강 정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됨에 따라 복지 예산 등이 삭감 등도 국민으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최소 22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교육 예산 1조 4000억,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한시적 생태구호비 4181억,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880억, 저소득층 긴급복지비 1000억, 장애인등무상교육 지원비 50억, 장애인차량지원비 116억 전액, 사회적 일자리 창출 340억이 삭감됐다.

#종교계의 움직임 한목소리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 불교환경연대 등이 주축을 이루고 각 교구본사에서 지역적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여주 신복사와 공주 영은사 내에는 4대강 반대운동의 중심적인 여강선원(선원장 수경, 회계사 주지, 금강선원(선원장 기돈)이 지역 시민·종교·사회단체와 다양한 활동을 펼

치고 있다. 낙동강에는 천성산 도봉봉 스님으로 잘 알려진 지용 스님이 낙동강 공사현장을 지키고 있다. 여강선원에서는 수경 스님이 시민들과 함께 오체투지로 생명 살리기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여강선원에는 활동가들은 경찰, 공사인부들 간 몸싸움을 벌이면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을 지키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용 스님은 낙동강에서 낙동강 순례 안내와 4대강 실태를 카페 (<http://cafe.daum.net/chorok9>)에 속속 올려 현장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금강선원은 공주 마곡사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선원에서는 방문객에게 4대강 사업의 실태를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공주대 내 4대강 공사 전후 사진을 전시해 청년층의 참여율을 고조시키고, 부처님오신날 이후부터는 마곡사 말사 신도들이 매일 공사현장을 방문한다. 5월 29일 금강유역 4대강 반대 운동 역량 결집대회를 여는 등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 저지 운동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6·2 지방선거와 4대강
영산강 지역을 담당하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5월 14일 연동축회에서 '4대강을 그대로 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4대강을 그대로 두라"며 "최소한의 개발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평화의 강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종교계의 지속적인 움직임은 6·2 지방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깊다. 10일 열렸던 '4대강 반대' 가톨릭 대규모 시국미사에서는 "투표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에 앞서 불교계에서도 4월 17일 수륙대제에서는 불자 행동결의문을 통해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보존과 생명살림에 앞장서는 후보들을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해 정부와 정치계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법정 스님 4대강 사업 가상인터뷰 구불 구불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지난 3월 입적한 법정 스님은 늘 '자연과 인간'을 말했다. 만약 스님이 살아계셨다면 올해 범회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스님의 저서 <산에는 꽃이 피네> <일기일회> 등에서 스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상으로 구성해봤다.

Q: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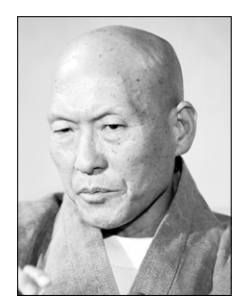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찮다고 해서 농약으로, 강한 살충제로 죽여 보세요. 그 생물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이로운 것까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생태계의 이변과 환경문제, 또 지구 온난화 문제,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과 조화를 모르고 어떤 부분적인 것에 갇혀서 그것만 지나치게 소비하고 낭비하고 혹사시키다 보니 지구 자체가 인간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재앙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반 자연적인 그릇된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살아 있는 생명을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자신의 목숨이든, 남의 목숨이든,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이 땅의 무수한 생명체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대지는 한두 사람의 생각만으로 이 땅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국토는 오랜 역사 속에서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영혼이고 살이고 뼈입니다.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 신성한 대지에 대한 무례함이고 모독임을 알아야 합

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굽이 굽이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깊은 웅덩이를 파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채워 넣고, 강변에 콘크리트 제방을 쌓아 놓으면 그것은 결코 살아 있는 강이 아닙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멸종한 우리 국토를 허물고 파헤치고 토막 내겠다는 지금과 반자연적인 무모한 계획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이런 위험한 국책사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커다란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Q: 4대강 문제에 대해 여전히 무관심인 사람이 많습니. 사부대중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수도자가 세상의 흐름에 대해 너무 어두워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상 흐름에 편승하는 것도 수도자답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지식들을 갖추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사회를 알고, 그 사회를 바르게 이끌테니까요. 우리가 마음의 수양을 하고 개인의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만 멈추려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인 천 교 구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 인천지역 중도들은 부처님 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하시길 합장 발원드립니다.

종무원장 **용 운**

호 불 사 경 원 (연수구 옥련동)	수 현 정 사 수 현 (부평구 심정동)
동 합 사 연 화 (부평구 심정동)	백 두 압 백 두 (연수구 청학동)
묘 현 사 지 현 (남동구 간석 3동)	수 인 압 연 화 (남구 송의동)
일 심 사 지 명 (남구 용현 1동)	은 송 압 태 봉 (남동구 구월 3동)
일 조 사 혜 수 (김포시 감정동)	해 음 사 월 해 (남구 학익동)
법 보 정 사 법 려 (남동구 구월 4동)	약 사 암 서 연 (중구 송월동)
청 룡 사 수 월 (남구 송의 4동)	

◆ 인천교구 종무원 : 은 혜 사 (인천시 부평구 청천 1동 125-5) 전화 (032)504-8359 / 전송 (032)502-8459